

만남

03

2022

통권 577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함께 서는 신앙교육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며 - 교육부 교사 신년기도회 열어

교육부(부장 정천우 장로)가 주관한 교사 신년기도회가 지난 1월 22일(토) 오후 3시부터 드림홀에서 열렸다. ‘함께 서는 신앙교육 공동체’를 주제로, 교사들을 위한 김운성 위임 목사의 말씀과 교육부 각 부서(아동부, 대학부, 베드로부, 청년부, 중·고등부, 영·유아·유치부, 교회교육원, 교사교육부, 사랑부 등)의 주요 사역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이후, 부서 교사들의 간증, 부서별 비전을 공유하며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2부에는 퀴즈 등을 통해 풍성한 선물과 함께 교사들을 격려했다. 백성우 목사는 “교회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올라인(all-line)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다음세대를 향한 교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화합과 소통 가운데 새로운 교육 역사를 펼쳐나가자”고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하나님의 손에서 평안을! 김운성

특집 04 교사교육부 ‘교육영상 아카이브’ 소개 백성우

기획연재 08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 서원모

특별기고 14 3.1운동에서 기독교 교회 역할에 대한 재점검위한 제언 양지청
16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성희

다음세대 19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김태연
22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니 기뻐했습니다 노대웅
25 순종으로 함께 하며 성장합니다 신재원
27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안유환
28 늘 넘어지는 나를 “괜찮다” 하시는 주님

영락의 울타리 31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되는 The Story 이창조
32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병훈
33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자로 박용준
34 100% 확신한 삶을 바꾸어 놓은 하나님 김민석
36 소중한 영락교회 추억 유현진
38 은행나무 김성보
39 창을 열어 환기시켜주세요 조준호

표지설명



알프스 몽블랑의 만년설을 배경으로 진달래
평원이 전하는 봄소식.

땅끝까지 이르러 42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최지아

문화광장 46 바흐의 <전원곡> 박소인
49 눈으로 듣는 빌립보서 임대현
50 엄마 마음 유당주

교회소식 51 자녀와 함께 하는 오이코스 축복 기도회 열어 외
54 2022년 부서지도 전도사
56 3월 목회력 /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평안을!

김 운 성 위임목사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4~7)

현대 사회는 인류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선물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배경에는 자율성을 가진 개인이 자기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주의가 흐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억압이며 인권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심하게 인권을 탄압하시는 분인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했으니,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조차 없었던 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항하면서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살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빚으려는 거대한 세력과 맞서게 됩니다. 우선 부모의 기대가 있습니다. 비단 부모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준에 맞추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에 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연봉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배우자와 결혼해야 결혼식에 자신 있게 지인을 초대할 수 있는지, 신혼집은 어느 동네에 어느 정도 규모여야 하는지 등 끊임없는 외부적 기준에 맞추느라고 허둥댁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사람다움을 잃고, 비인간화되어 갑니다.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더 큰 억압의 틀 안에 몰아넣습니다.

자가치료는 사회적 억압에 대한 반항

앨런 노블 교수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원제: You Are Not Your Own)』에서 현대인이 이 과정에서 느끼는 고갈과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자가 치료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자가 치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술,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혹은 흥분제 복용, 폭식, 각종 중독(드라마, 일, 운동, 뉴스, 포르노, 도박, 게임, 쇼핑, SNS 등), 자살 시도, 여행, 극단주의 운동에 참여, 다단계 판매, 생명을 거는 익스트림 스

포츠, 비트코인, 성형 등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때로는 멋진 자아실현의 방식으로 선전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자가 치료는 사회적 억압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던 사사시대적 삶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삽니다. 삶의 모델이 없습니다. 금기 사항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적 성취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앞으로 자신을 가렸지만, 지금은 수치심도 사라졌습니다. 불륜, 성적 왜곡, 거짓말에도 당당하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은 많아지지만, 착하고 좋은 사람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회에서 성도는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은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생각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자신을 맡기는 대신,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온전히, 기쁨으로 맡길수록 신앙은 깊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부응할 능력이 없음을 슬퍼했을 뿐,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에는 순종했습니다. **만남**

올라인(all-line) 시대 교사교육 〈교육영상 아카이브〉로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하게 했으며, 이는 양면성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성’에 가해진 위기 요소가 있는가 하면 그 이면으로는 기존의 모임 방식을 뛰어넘어 온라인을 통해 더 적극적인 만남의 기회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면모임(off-line)의 장점과 비대면 모임(on-line)의 장점을 함께 아울러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올라인(all-line)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교사교육부에서는 2022년 신입교사교육 및 교사계속교육, 교육부 봉사자들을 위해 저명한 강사로 구성된 온라인 강의 『교육영상 아카이

브 체제(63개 강의 영상)』를 일차적으로 구축했고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올라인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해서 교사를 교육하며 나아가 모든 성도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교사계속교육 의무과정 혁신

변화하는 시대와 학생들을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해, 영락교회의 모든 교사는 교사 봉사 6년이 지나면 반드시 교사계속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특성상 주일을 중심으로 부서 현장에서 섬기는 중에 정해진 교사계속교육에 참여하여 이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준비된 교육영상 아카이브 체제를 통해 각 교사는 스스로 시간을 조정하여 교사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교육 내용도 다변화하여 공통적 기초를 마련하는 필수과목(4개) 외에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3과목)하여 교사 개인의 교육적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혁신되었습니다. 강의의 주제와 내용은 매년 지속 점검하여 현장의 필요에 맞게 지속해서 수정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준비된 교사계속교육 의무과정 내용을 소개합니다.



백성우 목사
교육전담
교사교육부, 교회교육원

교사계속교육 의무과정

번호	구분	주제	강사
1	필수과목	영락교회 교회교육 이해	백성우 목사(영락교회)
2		연령에 따른 학생 이해	이규민교수
3		교사란 누구인가	최관하 목사
4		교사가 꼭 알아야 할 기독교 교리	백충현 교수
5	선택과목	한 눈에 보는 구약성경	김진명 교수
6		한 눈에 보는 신약성경	권연경 교수
7		가르침의 방법	권진하 목사
8		다음세대가 꼭 알아야 할 이단과 사이비	임평호 목사
9		다음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최한윤 목사(영락교회)
10		문화에 따른 학생이해	이창호 교수
11		기독교사와 영성	권혁일 목사(영락교회)
12		소그룹 사역 훈련	탁현수 목사(영락교회)
13		기독교사의 자기관리	이상억 교수 (장로회 신학대학교)



2. 모든 교육 섬김이를 위한 교사계속교육 (교사, 임원, 지도위원, 봉사자 등)

① 교육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교회학교에는 영·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서 임원, 지도위원, 봉사자, 실행위원 등 다양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생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찬양, 반주, 회계나 교무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본 아카이브는 이처럼 교회학교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계속교육에 활용됩니다. 특히 각 부서에 처음 임하는 봉사자들이나 임원, 지도위원이 해당 부서의 학생들과 사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봉사의 질을 높이고자, 봉사 시작 후 첫 3~4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부서별 봉사자 교육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② 부서별 교사를 위한 자체 교육 활용

각 교육부서는 연중 자체적 교육 진행을 위해 본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 1차 구축에는 연령별 각 부서의 필요를 주로 반영했습니다. 사랑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현장 교사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내용을 각 부서를 통해 미리 취합하여, 이에 대응하도록 강사 섭외하여 교육영상을 구성했습니다.

③ 모든 교사를 위해 열린 아카이브

‘교육영상 아카이브’는 모든 교사에게 상시로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필요한 내용을 청취하여 교사 스스로 성숙과 성장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모든 성도를 위한 교육영상 아카이브

나아가 본 <교육영상 아카이브>는 모든 성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자녀를 이해하고 싶은 부모

님, 다음세대를 이해하고 싶은 성도, 특별히 신앙교육과 교육 봉사에 관심 있는 성도, 나아가 제공되는 교육 내용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라도 교회 홈페이지 접속해서 시청할 수 있는 오픈 아카이브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4. 교육영상 아카이브 세부 내용

다음은 현재 준비된 교육영상 아카이브의 내용을 부서와 주제별로 분류한 표입니다.

사랑부

강의 주제	강사명
의사소통 발달 및 의사소통 권리	김경양 센터장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이만식 교수
장애인을 위한 교사의 역할	이상록 목사
장애인 부서에 임하는 교사의 자세	곽 호 목사

영·유아유치부

강의 주제	강사명
바른성경 이해하기	조영민 목사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	이상억 교수
건강한 믿음의 가정 세우기	백은실 사모
영·유아·유치교사의 역할과 사명	신현호 교수
MZ세대 부모이해	김숙경 소장
MZ세대 부모와 소통하기	김숙경 소장

아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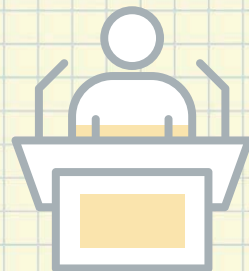
강의 주제	강사명
미디어 시대 아동과의 소통 코칭	권장희 소장
미디어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권장희 소장
다음세대와 선교비전	정기목 교수
코칭 교회교육의 새로운 시도	전경호 목사
경청 마음을 여는 열쇠	전경호 목사
그림책으로 맛보는 기독교 세계관	박현경 작사

중등부

강의 주제	강사명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신앙전수하기	신형섭 교수
메타버스와 반목회	곽상학 목사
청소년들과 소통하기	김성중 교수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김성중 교수
교사의 정체성	김보성 목사
메타버스와 교회 학교	김현철 목사

고등부

강의 주제	강사명
사도신경	신옥수 교수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훈육법	이지현 교수
학생 전도 및 만남	최병호 교사
청소년 복음제시	국광승 목사
청소년 제자훈련	한재훈 목사
한국교회와 이단	탁지일 교수
청소년과 이단	탁지일 교수



대학부

강의 주제	강사명
OO년생이 온다	이창호 교수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관계	성석환 교수
뉴노멀 시대의 불안과 상처 치유	이상억 교수
청년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	신형섭 교수
고통의 시대를 걷고 있는 청년들에게	김희권 교수
기독교와 동성애	김지연 약사

청년부

강의 주제	강사
청년이해와 청년부	박봉수 목사 (상도교회)
청년과 기독교 신학 성령론	최운배 교수
축복을 유통하는 삶	장경철 교수
청년과 일터	방선기 목사
청년과 기독교신학 신론	신옥수 교수

이상 63개의 강의 아카이브는 매년 새로운 내용으로 상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서 교사, 봉사자, 임원뿐 아니라 많은 성도가 관심을 두고 활용하여 우리 교회 다음세대 사역이 주님 뜻에 따라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만남**



“신입교사 지원하세요”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 교회학교 신입교사 교육과정 안내

모집일정: 3월 6일(주일) ~ 3월 20일(주일), 베다니광장 부스 또는 온라인(<https://forms.gle/e1wfRNDYhaHQfrfv9>) 지원

교육기간: 4월 3일(주일) ~ 11월 13일(주일), 총 20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격: 영락교회 출석 1년 이상 된 세례교인

교육과정: 성경과 신앙 이해, 영성교육, 학습자 이해 및 관계 훈련,
다양한 교육이론과 교육방법 이해 및 소그룹 나눔, 현장 탐방 등

문 의: 교사교육부 (010-2047-4624)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



비텐베르크 시가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는 루터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도시가 되었다. 비텐베르크는 루터가 거주하며 가르치고 설교한 도시이며, 종교개혁의 진원지와 중심지가 되었다. 이제 비텐베르크에 남아 있는 루터의 흔적을 찾아가며 그의 개혁 정신을 되새겨보자.

루터 당시 비텐베르크는 인구 2,500명 정도의 작은 도시였지만, 15세기 말부터 작센 선제후가 거주하면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중심지로 변모했고, 1502년에는 대학이 세워졌다. 교회로는 일반인이 다니는 슈타트교회(시 교회)와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쉐로쓰교회(성 교회)가 있었다.

또 1504년에는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원이 건립되어, 루터는 1508년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사로 이 도시에 왔다. 그는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신학 수업도 들었으며, 1512년 10월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한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며, 자신의 영적 체험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서원모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비텐베르크의 주요 유적지(루터하우스, 슈타트교회, 솔로쓰교회)

“나는 저 구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를 몹시 목말라 하면서 집요하게 바울을 쳤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나는 밤낮으로 주의 기을여야 하는 단어들의 연결, 즉 ‘하나님의 의가 저곳에 나타났으니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구절을 묵상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 의로 인해 의인이 살아가는 바로 그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열린 문들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느꼈다” (강치원,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99~100쪽)

아마 이 복음의 발견 사건은 루터가 서재와 기도실로 사용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탑실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이 수도원 건물은 루터의 결혼 이후 사저로 개조되었고, 지금은 <루터하우스>라는 이름의 박물관이 되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루터의 삶은 1517년 말부터 격변에 휩싸였다. 교황에게 허락받아 면죄부를 판매했던 마인츠 대주교에게 만성절을 하루 앞둔 10월 31일에 항의 편지를 쓰고, 면죄부의 효력에 대한 공개토론 논제를 솔로쓰교회 출입문에 게시했다. 그의 논제는 인쇄되어 독일 전역에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면죄부가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하며, 심지어 연옥에 머무는 영에도 이러한 사면이 적용된다는 『면죄부 요약지침서』를 생각하면, 면죄부 설교자 테첼이 “돈궤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 오른다.”라고 설교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파는 이 악습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는데, 이러한 비판은 교황교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저항하는 행위였다. 면죄부의 효력과 발행 그리고 판매 모두 교황권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대무오한 교황의 권위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던 곳. 현재는 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루터하우스. 서재와 탑이 보인다



95개 조 기념문. 솔로쓰교회 정문이다



루터의 참나무. 1830년 심었다

해 루터는 공의회도 교황도 성경 아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만이 이 땅에서 모든 저서와 가르침에 대한 바른 삶의 주인이요, 지배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교황청은 1520년 6월 루터를 파문하겠다고 위협하는 교서를 공표한다. 그해 12월 10일 루터와 그의 동료들은 비텐베르크 엘스터 출입문 앞에서 교황의 파문 위협 교서를 포함해 교황의 교서들과 교회법과 스콜라 신학 서적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사도행전 4:19)’라는 베드로의 답변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교황의 문서를 불태운 곳에 심었다는 ‘루터의 참나무’는 나폴레옹 전쟁 때에 연료 부족으로 베어졌고, 현재의 나무는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300주년을 기념하여 1830년에 심었다. 이 참나무는

교황권에 맞선 루터와 동료들의 결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루터 성경, 루터 찬송가

루터하우스에는 루터의 개혁과 관련된 많은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그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두 가지는 루터 성경과 찬송가이다. 루터는 성경이 교회의 모든 결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면에서 성경을 모든 신자에게 되돌려주었다. 첫째,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 주어야 한다는 교황주의자에 대해 루터는 성경은 자명하고 확실하여 누구나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글을 아는 모든 자가 자유롭게 성경을 읽도록 했다. 신약 성경은 1522년 바르트부르크성(城)에 은신하는

기간에 번역되었지만, 구약성경까지 포함된 전체 성경은 1534년에야 출판되었다. 루터는 평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독일어로 번역했고,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번역 수정작업을 맡겼다. 루터 성경은 독일어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루터는 음악이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다. 루터는 일반 교인들도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예배 의식을 개혁했으며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다. 그에게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일 뿐 아니라 성경과 복음을 고백하고 배우는 통로였다. 그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찬송에 힘이 있다고 굳게 확신했다.

십자가의 신학

루터의 개혁 정신은 슈타트교회의 제단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쪽에는 세 폭으로 세례(유아 세례)와 성만찬과 참회 의식이 그려져 있다. 이것



루터 번역 성경(루터하우스)

은 성만찬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받아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루터의 신학을 반영한다.

또한 성만찬에는 사도들과 함께 비텐베르크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며, 식탁도 의자도 원형이어서 어떠한 위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터는 “세례의 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성별된 사제이고, 주교이고, 교황이라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참회를 들을 수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이것이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의 핵심 내용이다. 반면 아무리 신학을 많이 알고 수도 생활에 헌신한 경건한 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제단화 아래쪽에는 설교하는 루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설교단에서 루터는 손가락으로 중앙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루터 신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복음 메시지이다. 그리스도가 죽었고 왜 죽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루터는 영광의 신학을 비판하고 십자가의



루터의 신학을 담은 제단화. 슈타트교회에 있다

신학을 강조했다. 영광의 신학은 보이는 창조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하지만 십자가의 신학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루터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보인, 가시적이고 명백한 하나님의 일들을 파악하는 사람만이 신학자라고 인정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인 것 같고 사탄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세상의 주인처럼 보인다. 십자가 신학은 현실과 경험에서의 모순되는 상태를 건디는 것이 신앙이며, 우리의 눈을 약속의 말씀에 고정함으로써 세상의 현실을 이겨내야 한다고 가르친다.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루터하우스는 루터의 또 다른 삶을 증언한다. 1525년 6월 루터는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했다. 이때 독일은 농민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였고, 루터는 평민이 복음의 이름으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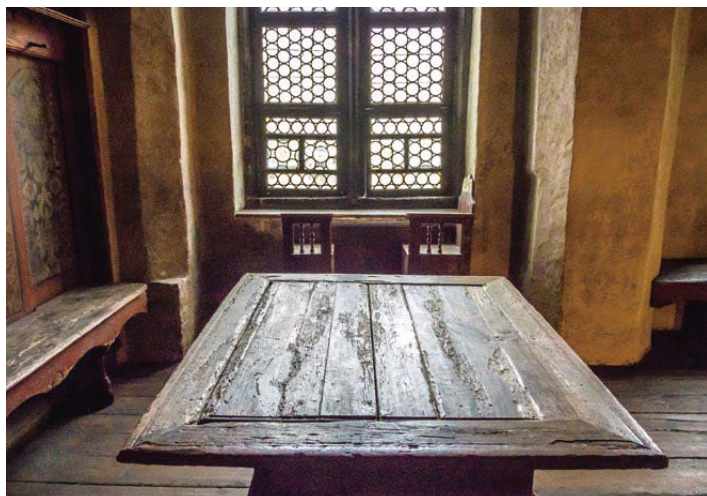


개혁자의 아내 상을 실현했던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 조각상

세자에게 저항하는 것을 종말의 징후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농민전쟁이 한창일 때 그는 수도자와 성직자 독신의 전통을 깨고 카타리나와 결혼했다. 한편으로 루터의 결혼은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과 보물’이므로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일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루터에게 있어서 결혼은 마귀와 싸우는 일이었다. “내 결혼식은 천사들을 웃게 하고 마귀들을 울게 할 것”이라고 편지에 쓰기도 했던 루터는 마귀가 전쟁과 세계 종말로 복음의 전파와 안정된 결혼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았고, 마귀를 괴롭히기 위해 결혼한 것이다.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는 작센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수녀원에서 생활했으며, 수녀원 생활을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1523년 카타리나는 다른 수녀들과 함께 수녀원을 탈출했고 결국 루터와 결혼했다. 루터는 카타리나를 “비텐베르크의 셋별”이라고 불렀으며, 프랑스나 베니스를 다 준다 해도 카타리나와 바꾸지 않겠다고 자랑했다. 루터가 심하게 아팠을 때 카타리나는 “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당신을 살리겠어요”라며 격려하고 극진히 간호해서 회복을 도왔다고 전해진다. 루터가 “지상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가르친 것은 자신의 행복한 결혼생활의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루터는 카타리나와 결혼 후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원을 사제로 선물 받았다. 카타리나는 가정 경제를 책임졌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맥주를 양조하고, 양봉하고, 채소를 기르고, 양어장을 만들고, 가축과 동물들을 키웠다. 루터와 카타리나의 사저에는 가난한 학생들, 친구들, 개혁자들,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이들이 식탁에서 나눴던 대



루터의 식탁

화는 신앙, 교회, 국가, 가정, 공동생활 등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했는데, 카타리나도 이 탁상담화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다.

카타리나는 목사 부인이라는 새로운 여성 사역을 발전시켰다. 중세 시대까지 수녀원은 여성들에게 창조성, 자아 표현, 저술, 지도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개신교는 수녀원을 폐쇄했고, 아내와 어머니로서 해야 할 역할을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했다. 카타리나는 개혁자의 아내로서 개혁에 참여했다. 특히 카타리나는 자신의 신앙을 매일의 삶에서 실현하고 표출하고자 했다. 루터가 돈을 줄 테니 성서 전체를 다시 읽으라고 요구했을 때, 그녀는 공부는 충분히 했고 이제 실행하며 살아내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카타리나의 영성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비텐베르크는 루터 이외에도 루터의 동역자 필립 멜란히톤과 종교개혁 신앙을 그림으로 표현한 루카스 크라나흐를 기념하는 박물관도 있다. 이것은 루터의 개혁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당시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주었

다는 것을 알려준다.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 여행을 끝내면서, 비록 비텐베르크에서는 멀리 떨어진 보름스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독일의 정치·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제국회의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루터의 선언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나의 주장이)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을 통해 잘못되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굴복하여 머물고, 내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채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서로 반대되는 주장들을 폈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입장을)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안전한 것도 아니며 올바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소서, 아멘”(강치원, 『저항과 복종 사이의 존재가 가야 할 길』, 110쪽). **만남**

3·1운동에서 기독교 교회 역할에 대한 재점검위한 제언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국의 침략을 받았고 그럼에도 점령당했다가 다시 나라를 되찾는 과정을 이어가며 역사를 만들어왔다. 기독교는 한반도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순교당하며 복음을 전했고 평안남북도, 황해도 등에 특히 교회가 많이 설립되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수차례 침공한다. 임진왜란, Japanese invasions of Korea in 1592, 조일전쟁(朝日戰爭)으로 불리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전쟁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내의 불만을 억누르고 대륙을 차지하고자 하는 야심으로 조선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으로 알려졌는데 한반도에 일본군, 조선군, 중국군이 7년간을 짓밟은 난자한 전쟁이다. 어쨌든 준비 없고 허약한 국력을 엿보고 침략당한 전

쟁이다. 심지어 일본이 당시 조선을 침공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2인을 보냈으나 귀국한 이 두 그룹은 평가분석을 상반되게 하는 한심한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일본은 조선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대비도 못 한 조선의 황제와 관료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를 초래한다. 이후에도 반성은 없거나 미흡했고 여러 외교 및 국방 등 빈약한 대책으로 1636년 병자호란으로 불리는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으로 또다시 파괴되고 왕이 무릎꿇는 수모를 당한다.

그 이후에 결국 일본이 다시 한반도에 들어와 한일 합방하게 된다. 즉 나라를 도장 찍어 일본에 바친 것이다.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은 결국 유비무환을 못 한 것이다. ‘환향녀’는 한자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이라는 뜻으로, 그 말의 기원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성들을 일컫는 말에서 기인한다. 나라가 약해 여자들이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 곤혹치르고 귀향했는데, 멀리하고 비난한 역사를 보면서 못한 조상들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다. 3.1운동은 교회에서 기획하고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한국 민족의 독립 의지와 단합된 저항을 보여주었다.



양지청 장로
홍보출판부 부장
서초교구

이러한 사항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찾아 교회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크게 3·1운동은 서울,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의 주요 도시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어 운동이 시작되었다. 비폭력이고 학생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이 태화관에서 모여 서영환을 통해 독립통고서를 조선총독부에 전달했다. 3월 2일에는 함흥, 수안, 황주, 중화, 강서, 대동, 해주, 개성 등 기독교 세력이 강한 평안도와 황해도 주요 도시로 확산했다. 3월 5일에 남대문 역 광장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평양과 광주 학생도 참여했다. 3월 10일 이후에는 시위가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등 중·남부 지방으로 확산하여 전국 규모화됐다. 그 과정에서 교회 47개소가 소각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구체화할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여 협력을 위한 글을 올리며 정부의 협력도 도출하고자 한다. 친일파 프레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일제 강점기 태어난 사람은 일제가 만든 소학교에 입학해 일본 선생에게 배우고 공부를 더 하면 중·고등, 대학도 일제가 설립한 틀에 들어가 배우는 것이며 취직해도 일본의 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다. 20~30년 일본 체제하에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나라 찾기에 주도적 역할을 못 했다고 비난하기도 쉽지 않다. 대다수가 역사의 교훈을 얻고 반성 없이 대비하지 못한 조선의 리더들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간 것을 친일이라 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북한은 소련공산당의 영향으로 반대로 국민을 친일로 몰아 사살했다. 글로벌 마인드가 뛰어나고 현명한 판단력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를 분

배하는 등 여러 조치를 했고 북한의 계획된 남한 침공을 UN군을 참전시키는 뛰어난 전략으로 공산 적화를 막아내었다. 기독교는 사회의 부름에 소극적이지 않았으며 성경 중심적인 바른 해석은 전체주의 유물사관에 대한 배척을 당연시하며 사유재산 인정 자본주의 시장경제추진이다. 일본과도 궁극적으로 지일을 하고 극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친일 논쟁은 소모적이고 프레임 씌우는 좌익들의 함몰된 음습한 전략이고 여성유방을 도려냈다고 극한 악감정을 유발하는 선동 모략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한 유형일 뿐이다.

실제 좌익들이 국민 시민을 선동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사용된 역사가 있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두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광우병 조작, 무기 탈취한 총으로 국군을 조준 살해하고 덮어씌우는 악마적 전술의 일환이다. 사회적 모순을 폭로하자고 몇 명이 함께 분신하자고 계획하여 신나를 뿌리고 먼저 불지르고 도망가 시체 팔이로 이벤트하며 돈 모으는 사회적 폐악도 있다. 한심한 사회. 교회가 사회의 정의 바로 잡기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선교의 기회는 사라지고 교회는 축소된다. 비기독교세력은 의도적으로 성경의 무결점을 와해시키기 위해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법제화하려 한다는 논리도 있다.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 국가에 대한 비판 없이 수천km 떨어진 외국의 인권 이야기만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3·1운동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영역 문제를 다룬 것은 외생적으로 교회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교회의 제대로 된 기획된 역할을 역사에 남기는 것은 기독교 선교와 생존에 큰 도움이 된다. **만남**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요나 1:1~10)

최근 한국 교회는 사면초가의 공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가뜰이나 ‘코로나19’로 교회마다 예배와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워지는데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변하지 않는 수구꼴통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뉴스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나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교회를 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언론 가십의 주메뉴가 교회이며 이제는 뉴스거리를 넘어 골칫거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자기들 배만 불리는 이기적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사회에 대하여 교회는 항상 섬기는 자의 자세이고, 사회복지도 교회가 앞장 서 있고, 기독교 학교가 사회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눈에 띄게 드러난 잘못들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한국리서치에서 ‘2021년 종교 인식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는 여전히 비호감입니다. 사회인의 종교에 대한 선호도

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이슬람교 순위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지만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기독교가 인정하지 않으면 비호감을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성희 목사
연동교회 원로목사

요나는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신약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한 것이나 큰 고기 배 속에 사흘을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카오스’(혼돈)를 ‘코스모스’(우주, 질서, 정돈)로 변화시키시는 작업이었습니다. 혼돈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바꾸신 것이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카오스’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코스모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에는 많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황이 ‘카오스’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사회적 상황이 ‘코스모스’이면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일어나 외치라

먼저 세상 사람들의 카오스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을 보세요. 요나 1:2에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참 운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를 가장 포악한 죄악의 도시인 앗수르의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악한 곳이기 때문에 외쳐야 합니다. 죄악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외치는 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외치다가 결국 목 베임을 당했습니다. 외침은 용기와 고독을 동반합니다. 선지자는 목 베임을 각오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한국 교회는 목 베임을 두려워합니다. 바른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카오스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항구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피하려 할 때에 마귀는 순간의 행복과 잠시 동안의 순조로움을 줍니다. 그리고 배 밑에 들어가서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깊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잠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가 소명을 망각하고 심히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때 이

방 사람인 사공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아직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기계로부터 나온 신’(Deus ex machina)을 찾습니다. 로봇, 인공지능, 드론을 부르느라 악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잠든 모습을 요나를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가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망각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이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세상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크 엘뤼는 “非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이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나라의 혼란과 고통이 나 때문이라는 고백과 자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사람들을 이용하시는 하나님

선장은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발견하고 그를 깨워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어서 세상의 풍랑을 견



디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대의 굴욕입니다. 이런 굴욕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카오스’ 속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깨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소명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세상으로부터 창피와 굴욕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선장은 “일어나라”라고 요나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라고 한 히브리어 ‘쿰 렉’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라고 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어 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방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교회에 말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교회가 더 많이 베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라고 합니다. 목사에게 ‘너나 잘하세요’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2의 기회는 제1의 기회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큰 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회개할 때 제2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카오스’인 죄의 세상을 ‘코스모스’로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래전 인도에서 사역하던 어느 선교사가 폭도들에게 쫓겨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절망과 공포 가운데 건너편 산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I need you”(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의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자신에게 들려왔습니다. “I need you”(나는 네가 필요해). 그는 산울림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힘차게 산을 내려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외쳤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는 네가 필요해”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화시키시려고 지금도 잠든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나 복음을 외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만남**



중등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022년 1월 14~16일까지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헌신이 너무나 깊이 느껴져 감사했고, 수련회 사이사이 묻어나는 우리를 향한 애정과 노력에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수련회를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괜스레 뿌듯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 사정 때문에 수련회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중등부 유튜브 채널에 일주일간 수련회 영상을 올려 주신 배려도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련회 시작 전에 집으로 배송된 수련회 키트 상자를 열어 보는 순간, 겨울 수

련회가 더욱 기다려지고 기대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신청한 친구뿐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 모두에게도 수련회 키트 상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중등부 모든 친구가 수련회에 반드시 참여하기를 바라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참 감동되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주신 여러 가지 정성스러운 선물들이 수련회를 더욱 재미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순히 선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전도사님과의 식사권 등이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또 중등부 예배 대표기도권도 많았는데요. 수련회 후반부에는 친구들이 선물 뽑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현장에서 수련회에 참가한 친구들은 “기도권! 기도권!”을 함께 외치며 웃었습니다. 그중에 수련회를 통해 중등부에 처음 나온 새 친구가 선물 뽑기에서 기도권을 뽑았는데,



김태연
중등부



현장에서 진행된 은혜로운 저녁집회



라인으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놀면 뭐하니>

당연히 망설일 줄 알았지만, 단번에 대표기도 하겠다고 흔쾌히 대답해서 대단해 보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첫째 날 진행한 ‘놀면 뭐 하니’와 ‘황 퀴즈 온 더 블럭’, 둘째 날의 ‘차이 나는 마카오리 클라스’와 ‘쇼미 더 쿠팡’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부모님과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도 유익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의 재치 있는 댓글도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게임은 열심히 했지만, 마음만큼 따라 주지 않았고, 퀴즈는 자꾸 틀렸습니다. 어찌어찌 완성한 떡볶이가 좀 맵기는 했어도 마음만은 너무 달콤한 느낌이었을까? 중등부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저녁 집회가 가장 재미있고 또 기억에 남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등부 특활반 중에서 <여디디야 찬양팀>에 속해 있는데 이번 겨울수련회에서 워십 댄스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너무 쑥스럽고, 긴장되었지만, 함께 찬양하다 보니 부끄러움보다 기쁨이 더욱 느껴져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모처럼 교회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며 반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져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여디디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겨울수련회 저녁집회 예배를 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
서로를 향한 뜨거운 기도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함께 모여 찬양과 워십댄스로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답답하고 아쉬웠는데, 이번 겨울수련회를 기회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이번 겨울수련회 저녁집회 때는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권오희 목사님께서 초청강사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이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렵고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도 재미있게 설교해 주셔서 지루하기보다는 맘껏 웃기도 하고 또 눈물날 때도 있어서 오히려 집중하여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제 안에 확신이 없어 고민했던 적이 많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태도에 대해 많이 돌아보고 반성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 주신 사람인데, 저의 유익이나 성취에만 급급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보내진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 적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며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겨울수련회는 시작 전부터 중등부 이영호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선생님들께서 40일간 릴레이 금식기도로 준비하셔서 그런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로 다짐한 이 마음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남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남**

고등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니 기뻐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요한복음 11:32)



고등부 수련회 달는 예배

주님의 곁에서

지난 1월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고등부에서는 ‘주님의 곁에서(요한복음 11:32)’라는 주제로 무박 사흘,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동계수련회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 4번의 하계, 동계수련회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했던 고등부는 학생들을 교회현장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학생들 상호간,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며,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동계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고등부 담당목회자로서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노대웅 목사
고등부



고등부 저녁집회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2022년 동계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고등부 동계수련회에서는 고등부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목회자와 교사가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잃었을 때,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라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셔서 고등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깨워 주시고, 죽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 달라는 소망을 담아서 ‘주님의 곁에서’라는 주제로 동계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성인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언



제 경험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70% 이상의 성도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다고 답합니다. 모태신앙이 성도의 대부분이 되거나 않을까 예상되는 미래에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올해 고3인 친구들은 이렇게 중요한 고등학생 삶의 대부분을 교회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타 오프라인으로 소그룹 활동이 불가한 상황에서 반별 모임도 온라인으로만 모여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방역수칙으로 인해 현장에 오지 못한 학생들이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다 해도 서로 대면하지 못한 채, 마음을 열어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교제하는 것뿐 아니라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부에서는 고등부 학생들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어렵게 보내고 있기에 교사와 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키며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한 사람의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동계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그리고 동행

고등부 담당목사로서 코로나시기에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고등부 저녁집회 기도회

와 함께하셔서 은혜주시고, 예배 받으심을 기뻐하시며, 다음세대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저녁 집회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학생들을 보며,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이 다음세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년여의 시기를 온라인으로 보내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많이 굳어져 있고 신앙적인 자산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속해서 놓인다면, 영적인 활력 회복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되, 모이기에 힘쓰고, 찬양하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때와 시기 및 문화는 변화되어도 다음세대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홀로 있는 시기가 많아졌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함께 그리고 동행'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여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며 동행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고 고등부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코로나 상황이 여전하지만, 교회와 고등부에 희망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한 공간에서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그 방법을 잊지 않는다면, 어려운 시기 이후의 교회와 고등부에 반드시 부흥의 기회가 다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계수련회를 보낸 지금은 교회와 고등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의 영적 근육을 회복하여 함께함을 힘쓰고 동행하는 일을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등부 동계수련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계수련회 이후에 고등부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대학부

순종으로 함께 하며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 107대 학생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48기 신재원입니다. 2022년의 대학부 표어는 아가서 2장 10절(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에 기반을 둔 ‘일어나, 함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저희 <With 학생회>의 지향점을 총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장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성장’은 저를 비롯한 학생회 임원들이 함께 학생회로 섬기겠다고 마음먹은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작년 말, 하나님은 제게 ‘더욱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모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일상에서 더욱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자리에 있고자 학생회로 섬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부 학생회장 자리를 제안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 자리가



신재원 성도
대학부 107대 학생회장

너무 커 보여서 선뜻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은 제게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지는 이 큰 자리에 가면 정말 주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 확실히 붙들린 상태로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학생회 임원 중에는 학생회로 섬기겠다고 마음먹기까지 고민하며 기도로 준비한 벗님들도 있는데요, 그 고민의 시간 회장단이 그 벗님들과 이야기하며 계속했던 말은 ‘우리는 함께 성장해나가는 학생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학생회 임원들 모두가 주님이 맡기신 여러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신앙적으로 단련되어 성장해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회 임기가 끝날 무렵,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기대됩니다.

순종

다음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학생회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집중하고 지속해서 되돌아보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너무 일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대학부 사역을 도울 때,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의 다른 여느 학생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함께 모여 학생회 관련 일을 하다가, 조금 지친다 싶을 때 주님께서 문득 우리 중 여럿에게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순종하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기억



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큰 힘을 더하여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 받는 학생회가 되자는 방향성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여 이에 순종할 때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마지막 키워드는 ‘함께’입니다. ‘함께’는 우리 학생회 이름인 With의 뜻이기도 하고, 올해 대학부 표어에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데도 ‘함께’라는 단어가 대학부에 강조되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앞서 이야기한 순종의 차원에서, 대학부와 우리 학생회가 주님이 함께하시는 공동체임을 믿고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학생회 내에서 서로 바라보며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회 안에서 자주 하는 말이 ‘우리 모두는 결이 비슷하지만, 각자의 캐릭터가 다 다르고,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해서 잘 맞는 부분도 많지만 다른 점

도 많기에 함께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눈과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함께함에 즐거워하는 학생회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 전체가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학생회가 대학부 안에 독립된 하나의 집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부 벗님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생회는 교역자, 지도위원, 사역팀 그리고 리더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은데, 이 기회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게 하는 통로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함께 하나 된 대학부를 만드시고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일어나, 함께’라는 표어와 ‘성장’, ‘순종’, ‘함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2022년 〈With 학생회〉의 지향점에 대해 적어보았는데, 글을 쓰면서 처음 우리 학생회의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며 고민하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새에 여러 예배와 겨울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분주했던 마음이, 이 글을 쓰면서 주님께서 우리 학생회의 구체적인 일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성을 다시 보게 하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학생회 임원들이 서로와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이 커지면서 ‘학생회로 섬기게 돼서 너무 좋고 감사하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또 몇몇은 벌써 ‘학생회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잃지 않고, 우리 학생회에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일어나’ 나아와서 ‘순종’하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써나가실 여러 이야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만남**

청년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광야소리>에 소속된 안유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저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영락교회에서 신명기 1장 6~8절 말씀과 'Break Camp' 라는 주제를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세 가지 목표와 다짐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순종’ 나의 첫 번째 다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서 말씀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순종을 시작으로 순종을 연습하다 보면 많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시선’ 나의 두 번째 다짐

1월 2일 주일설교 중에 위임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 봐야 한다. 좌우를 살피다가는 그분을 놓치게 된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라는 시간 중 매우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쓰길 원하셨습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 하노라(요한계시록 3:15)” 말씀은 차갑지 않은 것에 만족했던 모습을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저를 포함한 청년부와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허락하실 가나안을 기대하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해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감사’ 나의 세 번째 다짐

2월 5일 금요기도회 중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에 성경에 지키라고 기록해 놓은 것” 그중의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습관, 특별히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수증에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림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3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가나안이 어떨지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분명 우리의 기대보다 크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남**



안유환 성도
청년부 광야소리

늘 넘어지는 나를 “괜찮다” 하시는 주님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화선 작가

2021년 9월호부터 『만남』에 위로와 휴식, 감사로 가득한 묵상 공간이 등장했다. 웹툰 작가 이화선(작가명 이화하하)의 말씀 묵상 그림일기는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낸다.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등으로 많은 크리스천 독자의 사랑을 받는 이화선 작가를 『만남』이 만났다. 2018년부터 매주 1~2개씩 짧은 묵상 글과 삽화를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며 많은 청년의 공감을 얻은 그의 묵상 그림 속 주인공은 소심하고 작은 것에도 흔들리며, 하나님께 위로받고 의지한다.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작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낯을 많이 가리고 자신감, 자존감이 낮았던 자신을 그린 것”이라며 “하나님께서서는 나처럼 약한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이끌고 안아주신다는 메시지”라고 밝히기도 했다.

묵상그림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묵상 그림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저의 삶에서 경험하거나 깨달아진 은혜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주님의 위로일 때도 있고 말씀 속의 깨달음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론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출근길, 퇴근길, 지하철, 버스, 일상 어디서나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평범한 일상에서 보물찾기하듯 주

님의 은혜를 찾는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있습니다.

묵상그림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아주 개인적인 인연에서 출발했지요. 예전에 함께 교회를 다녔던 동생이 인스타그램에 기독교 채널(교회친구다모여)을 만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을 연재해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흔쾌히 수락했는데 매주 꾸준히 이야기를 그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말씀에 더 집중해야 했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니다. 그림을 꾸준히 올리다 보니 저에게도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니다. 돌아보니, 연재를 통해 주님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묵상그림을 그리는 작가님 자신의 고민은 무엇인지요? 작가님의 신앙고백을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림 한 장면과 짧은 글귀를 적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없는 날에는 묵상그림 그럴 내용이 없네?!’ 그때 마침 스스로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적어보라는 권유받았고 그때부터 예배가 없는 날에도 성경을 읽으며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음성을

삶과 연결해보게 되었습니다. 묵상그림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 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가장 먼저는 제게 주신 선물이었고 또 그 말씀을 가장 적당한 상황에 떠오르게 해주시며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묵상그림으로 끼친 선한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이 많은지 주로 2030 청년들에게서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받곤 합니다. 그중한 분의 메시지를 나눠 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는 책이 제 마음속에 쏙쏙 뭉여 있던 마음들을 녹여주듯 위로가 되었는데요 나뉘어 주신 묵상들마다 너무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
다. 저 또한 같은 실수를 하며 늘 넘어지는 제 모습에 자책하고 있을 때 ‘괜찮다’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평평 울었습
니다. 두려움에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제 모습, 늘 하
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제
모습들이 떠올랐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하며 매 순간 씩씩해야 했던 저에게 이 책의 모든 묵상은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글을 받으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감사의 말들이 주님의 위로로 다가오곤 합니다.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본인 작품 중에 특별히 아끼는 묵상그림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표지 그림입니다. 혼자 가려다가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해주는 내용인데, 참 많은 분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일, 인간관계 등에서 혼자 애쓰다가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내 힘을 내려놓고 엎드리면 주님께선 질책하시기보다 ‘내가 너 넘어질 것도 알았고 이미 너의 약함도 알고 있단다. 그러니 다시 나의 손을 잡으렴’이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던 경험을 그렸습니다.

SNS에서 출발해 책까지 내셨네요.

책을 내고 싶다는 꿈은 있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인지도가 있어야 책을 내출 것이고 개인 독립출판으로 하기에는 재정과 편집 등 모든 과정을 혼자 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꿈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묵상그림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할 무렵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품고 묵상의 방향과 초점을 삶 속의 이야기로 잡고 풀어냈습니다. 많은 분이 공감해주셔서 작년에 두 번째 책도 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룹전, 개인전으로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기독교 작가들과 함께하는 전시를 통해 저 자신도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내 삶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이며 은혜였다는 것을 그림으로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통해 작곡가님도 만나게 하셔서 함께 새로운 작업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전을 통해서도 제 삶의 전반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기독교인을 넘어 더 다양한 사람에게 그림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져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웹툰 작가로서의 정체성은 어떤가요? 앞으로 계획도 궁금합니다.

그림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림의 폭을 넓혀 좀 더 다양하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그림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제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제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리라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신다고요.

“프리랜서 예술 강사로 다양한 기관의 아이들을 만나 미술 과목을 가르칩니다. 매년 강사 신청을 해야 하고 배정받는 곳이 달라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더 다양한 아이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보육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두렵고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선 “네가 가는 그곳에 내가 주는 선물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소 가르치던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유치원생들이어서 아이들을 대하는 법부터 다시 공부해야 했고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녹초가 되어 하나님께 이게 무슨 선물이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 신뢰가 쌓이고 저 멀리서 달려와 안기고 좋아해 주는 모습을 보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지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이 기관에서 수업하고 싶었지만, 면접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수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계획하던 일들이 틀어지고 프리랜서와 강사로서 2022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올해 시작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걸어갈 겁니다.

이 작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묵상 일기로 나눌 것”이라며 “저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해주세요요”라고 청했다. **만남**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되는 The Story

이창조 목사

할렐루야! 강남교구와 목양부, 갈보리찬양대,
4부 예배를 섬기는 이창조 목사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31)’이며, 사랑하는 아내와 연년생 아들 이루야, 딸 이루리 이렇게 4식구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1년을 군중병으로 섬기던 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목회적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게 되었고, 이후 새벽의 말씀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감을 경험하며,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고, 우리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를 추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여정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함께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부터의 목회 여정을 영락교회에서 함께 걷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지만,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며, 따뜻한 사랑으로 성도를 겸손히 섬겨 하나님 나라로의 행진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만이 현재의 어두운 세상과 혼란한 시대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전심전력하며 행진하여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등대,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교회인 영락교회에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 일을 기도함으로 기다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만남**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병훈 목사

저는 마포·영등포교구와 선교부(농어촌·의료·부부), 3남선교회, 3여전도회를 섬기는 오병훈 목사입니다.

저는 아동심리상담사로 일하는 변해진 사모와 영락유치원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아들 오울(7살)과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장래 희망을 쓰는 과제에 ‘대한민국을 전도하는 목사’라고 써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초등학교생을 인도해 주셔서 ‘민족 복음화를 이끌어 온 영락교회 부목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둘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좌하면 우하겠고, 우하면 좌하



겠다’라는 말씀처럼 반복되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배려하며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영락교회 부임 후 드린 신년 기도회 첫날, ‘다시 벰엘에서’라는 김운성 위임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만남과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회복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행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만남**

식품영양학 전공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자로

박용준 목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대문, 은평 교구(7교구), 전도부(주중 사역), 4남선교회, 4여선교회와 임마누엘 찬양대를 섬기는 박용준 목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내 임지혜 사모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딸 박한별(8세)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식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년여 근무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과 ‘어떠한 인생이 값진 인생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빌립보서 2:3)’라는 말씀을 모토로 신앙적, 육체적,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여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핵심은 ‘만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와 성도와의 만남, 사회와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감을 지나온 10여 년의 사역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실천 의지를 품고 영락교회에서, 7교구와 맡겨진 사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충실로 섬김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100% 확신한 삶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대로 인도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저의 삶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1 때부터 트롬본이라는 금관악기를 전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재미를 붙이고 재능을 발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대학에도 어렵지 않게 합격하여 다니게 되었고, 이후 육군본부군악대에서도 복무하였고, 복학 후 유학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있었지만, 다른 이들보다 잠을 덜 자면서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를 주변으로부터 많은 인정도 받았고, 적어도 전공 분야에서만큼은 흔히 말하는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으면 늘 어렵지 않게 한 번에 통과하였고, 연주가로서 장래를 촉망받는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오며 저는 확신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소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연주가로서의 인생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9%도 아닌 100% 확신이었습니다.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늘 최종적으로 꿈꿨던 모습이 있었는데, 세계가 인정하는 큰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향해 주어진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그와 동시에 신앙 없는 연주가가 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은 제가 100% 확신했던 소명을 따라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교 졸업을 앞둔 시기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연습실에서 개인 연습을 하기 위해 악기를 집어 드는 순간, 몸이 평소와 같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데 필요한 안면 근육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곧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면근육에 이상이 생겨 전혀 악기를 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은 일을, 정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쳐보기 위해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 했습니다. 고쳐주시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김민석 전도사
성동·광진교구
IT미디어부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고쳐주셨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결국은 회복되지 못했고 원인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100% 확신했던 삶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놔두고, 왜 하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왔던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라며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약 2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걸돌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원망하며 아무 의미 없는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어느 날 우연히 한 선교 단체의 주중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은 너무나 평범하고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흔한 본문과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흔한 메시지가 그날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예배의 말씀을 통해 지난 세월 동안 제가 확신했던 소명에 대하여 올바르게 다시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연주가로서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연주하는 것이, 나를 지으시고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의 뿌리 깊은 곳에 있었던 저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꿈꿨던 이 장면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유명해져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잘 나가는 연주가가 되어야만 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싶은 ‘욕망’을 감추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겉포장지를 벗기면, 그 안에는 까



맴게 썩을대로 썩은 내용물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스스로 보지 못했던 이러한 저의 뿌리 깊은 곳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100% 확신했던 소명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심으로 말입니다.

그 이후도 저는 제가 전공했던 악기를 아직 연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도 슬프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안타까워하며 ‘새드엔딩(sad ending)’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해피엔딩(happy ending)’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확신했던 그 소명을 거두어가신 것이, 지금 되돌아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엔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현재에도 하나님과 함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저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만남**

소중한 영락교회 추억

나의 아버지는 2009년 소천하신 고 유재호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올해로 93세가 되신 박찬덕 권사님이시다. 황해도 신천이 고향인 부모님은 할아버지 대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받아 평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 서울로 오셔서 영락교회 교인이 되셨다. 우리집은 딸 넷에 막내로 아들을 하나 둔 딸 부잣집이다. 큰 언니 현숙(남편 김원호) 둘째 언니 현애(남편 강성일) 셋째 언니 현주(남편 노상운)에 이어 내가 넷째딸(남편 윤영길)이고, 남동생 용배(아내 문혜진)까지 모두 영락교회에서 자랐다.

봉사관 건너편, 본당 올라가는 계단 앞에 ‘실로암’이란 수돗가가 있었다. 친구들과 뛰어놀다 위로 뿜어 나오는 물줄기에 그대로 입을 대고 시원하게 마시곤 했다. 그늘에 앉아계시던 어른들이 와보라고 손짓하셔서 달려가면 구수한 이북말로 “너 혹시 유재호 집사(당시 집사) 딸 아니가? 고거이 신통하게도 닮았구나야!” 전혀 나에게 대해 모

르는 사람도 나의 아버지를 금방 떠올릴 만큼 나와 아버지는 붙어뻥이었다.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유아세례를 받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 안에 울려 퍼지는 은혜로운 오르간

소리와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성가대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과 찬양대 반주자의 꿈을 가졌다. 그 꿈은 나의 믿음과 함께 성장했다. 아버지께서 유년부 부장으로 계셨을 때 중학생이었던 나는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임시 반주자로 활동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설교가 시작되면 아이들과 함께 말씀에 빠져들었다. 당시 유년부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던 남동생은 최유찬, 이용진, 장세완(현 영락교회 호산나성가대 지휘자) 등 친구들과 함께 성가를 불렀는데 비엔나 소년합창단보다도 더 맑고 고운 목소리로 감동을 주는 보이소프라노였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고등부 성가대에 들어갔다. 지휘자 이병천 선생님의 지도 하에 은혜로운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고등부 성가대라고 해도 대곡을 선곡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서울예술고등학교 피아노과 신입생이었던 나에게 성가대 반주자 훈련의 계기가 되었다. 가을에는 ‘고등부성가대 발표회’를 했다. 어찌다 중창단 멤버에 뽑혀 임은실, 이명순, 한은경, 김미경 등과 여성 복3중창으로 “작은불꽃 하나가~”를 찬양했는데, 문제는 중간에 웃음이 터진 것이다! 서로 주의 주느라 쿡쿡 찌르고 또 웃다가 급기야 한마디 놓치고 겨우 찬양을 마쳤다. 발표회가 끝나고 당시 고등부 성가대 총무였던 김지언 오빠(현 영락교회 시무장로)에게 엄청 야단맞았다. 이후 어떤 경우라도 찬양할 때는 경건하고 신중한 태도로 하



유현진 권사
대전 충남대학교회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나눔께 찬양하는 자세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에 입학해서는 ‘호산나 성가대’에 들어갔다. 주일 아침엔 연습시간보다 1시간 일찍 모여 백병원을 층마다 돌며 찬양 봉사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개척교회의 저녁 예배에 가서 찬양했다. ‘로알리’, ‘한가람’이란 이름의 활동이었다. 2학년 여름 방학에는 제1회 ‘호산나순회연주’를 갔다. 대형버스에 나누어 타고 박종운 선생님께서 지휘하시고 나와 이정선 언니가 1부와 2부로 나누어 반주하며 부산 영락교회, 경주 제일교회, 부산 이사벨여고 등에서 찬양했던 기억이 나의 대학생활 중 가장 보람된 추억 중의 하나다. 지금처럼 창경궁으로 복원되기 전 창경원 벚꽃놀이, 학ampo 로알리 캠프, 호산나정기연주회, 겨울호산나음악캠프도 즐거운 추억들이다.

캐롤송, 메시아의 추억

성탄절에는 밤샘 캐롤송을 부르고 다녔다. 초저녁에 명동 한복판에서 성탄의 기쁨을 찬양한 뒤 관광버스를 세내어 서울 시내에 흩어져있는 대원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기쁘다 구주오셨네> <고요한밤> 등 성탄찬송을 4성부로 합창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크게 외쳤다. 제일 끝으로 방문한 덕에서는 따끈한 떡국을 대접해 주셨는데 정말 꿀맛이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나면 성탄절 아침예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찬양하는데, 밤샘 피로로 예배 시간에 잠이 들락 말락 하다가도 성가대 찬양 순서가 되면 모두 일어나 힘차게 “할렐루야~~”를 불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친구 김지현이 지휘를 맡고 있던 고등부 성가대 반주자가 되었다. 어린 시절 꿈꾸었던 영락교회 본당의 ‘알렌’ 전자올겐 반



1979년 호산나찬양대 주일성가 후 (지휘 박종운, 반주 채문경)

주자가 된 것이었다. 피아노 전공자인 나는 당시 임마누엘 성가대 반주자이신 장영희 선생님께서 부터 간단한 작동법만 배우고 예배 반주를 시작했다. 그 후 미국에서 6년간 그리고 귀국 후에도 교회의 파이프 올겐 반주자로 봉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박조준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하고 남편과 함께 미국유학을 떠나 6년 만에 귀국했다. 남편이 대전에 있는 연구소에 초빙 받아 30년 넘게 대전덕으로 살고 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해보니 영락교회에서 은혜 받고 경험하고 훈련받은 모든 것들이 나의 일생을 통해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어 왔던 것 같다. 대학에서 피아노로 후학을 양성하며 캠퍼스 전도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반주자로 또한 섬기는 일꾼으로 봉사하며 건강하게 지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린다. 이제 정년퇴임이 몇 년 남지 않았다. 퇴임 후 내 고향 서울로 이사 간다면 삶의 일부가 된 나의 영락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반겨줄 것으로 기대한다. **만남**

은행나무

수령400년

나무는 빈손높이 들고

기도한다

채워줄 양식은 어디 있을가

뿌리밑 흐르는 생수가

맑은 피를 세포마다 돌리며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네.

김성보 은퇴안수집사
노원교구

벼락맞아 검게 탄 원목에서 돌아난 새순이

거목으로 성장

그 속을 누가 검게 태웠을가

나약한 인간이 신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한

거대한 은행나무

새벽정원이 잠깨어

안개가 덮칠때에도

은행나무는 꿈속을 헤멘다

인간보다 더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나무

흰옷입은 여인들이

동트기전 찾아와 나무에 웅얼대며

알지 못 할 소원을 빈다

욱어진 가지들 마음의 배고픔은 생명을 찾았네.

늦가을

치유의 은행알은 덧

없이 프락에 떨어다

은행은 고목이 되어도

생산이 끝이 없다.

항상 큰 것을 구하고

너무 먼 곳을 홀로 간다

성당의 종소리와 북소리가 부딪혀

하늬바람이 이는 황금은행나무였네.

창을 열어 환기시켜주세요

- 실내 환경과 건강

실내 환경 관리의 중요성

우리는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낼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식당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약 80 ~ 90%를 실내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에어컨 등 냉방 장치의 효율을 높이고, 겨울에는 난방 장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건물의 밀폐성을 높이면서, 환기량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내공간에서의 인

체 유해물질의 발생 등 실내 환경의 적절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실내공기오염물질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공기오염물질 항목에는 유지기준에 해당하는 5개 항목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준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사항입니다. 한편,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항목은 권고사항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래 <표1>은 실내공

<표1> 실내공기오염물질(유지기준)의 종류 및 발생 특성

	발생 지점/기전	제품/기구
미세먼지(PM10)	외부 공기, 일상 활동	연소기구, 의류, 담배
이산화탄소	주방, 거실, 대합실, 도로변, 식품 조리, 호흡	연소기구, 인체
포름알데하이드	새로운 가구 구입 또는 리모델링 등이 있었던 실내 공간, 건물 신축	건축자재, 접착제, 단열재, 마감재, 바닥재, 가구, 담배, 화장품, 의류
총부유세균	실내공간 일체, 주방, 거실,	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털), 인체(대화, 재치기 등), 음식물쓰레기, 카펫, 벽지
일산화탄소	주방, 연소 공간, 보일러실, 도로 주변, 주차장, 화석연료 연소	연소기구, 담배

출처: 'NCS 실내공기질관리 실내오염관리 학습모듈(2018)'의 표 내용 재구성

기오염물질 중 유지기준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오염물질이 어떤 장소 또는 지점에서 주로 발생하고, 어떤 활동이나 제품 등에서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공기질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에서 지정한 천식 유발 요인

미국의 환경보호청 홈페이지에서는 특별히 실내에서의 천식 유발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9가지 발생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오염물질의 성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발생원 자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이해가 쉬운 것 같아 소개합니다.

〈표 2〉 미국 환경보호청이 제시하고 있는 실내 환경 중 천식 유발 요인 9가지

발생원	특징 및 건강영향
1. 환경성 담배 연기	- 담배 연기에는 4,000종의 유해물질과 수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2. 집먼지 진드기	- 침대, 베개, 카펫, 천이 씌워진 가구 등
3. 곰팡이	- 누수 또는 결로 발생 벽면, 습도가 높은 장마철 옷장
4. 바퀴벌레 및 위생곤충	- 바퀴벌레 배설물과 침에서 발견되는 일부 단백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일부 개인에게 천식 증상 유발 가능
5. 반려 동물	- 애완동물, 즉 개, 고양이, 설치류(햄스터, 기니피그 포함) 및 기타 온혈 포유류의 피부 조각, 소변, 대변, 침, 머리카락에 있는 단백질
6. 이산화질소	- 이산화질소는 눈, 코, 목을 자극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무취의 가스 - 실내 NO ₂ 는 가스, 등유, 목재 등 연료연소 시 발생
7. 대기오염	- 실외 공기 오염과 꽃가루는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음.
8. 자극성 화학 물질	- 자극성 화학물질 - 세제제, 페인트, 접착제, 살충제, 화장품 또는 방향제, 청소용품과 교육용 키트에서도 발견
9. 목재 연소 연기	- 장작난로와 벽난로 연기는 유해가스와 미세먼지의 혼합물 - 천식 발작과 심각한 기관지염 유발 가능 - 심장, 폐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 호흡기 질환의 가능 증가

출처: <https://www.epa.gov/asthma/asthma-triggers-gain-control>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가정에서도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모 일간지 신문 기사에 따르면, 공기청정기의 가동이 미세먼지의 농도는 감소시켰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이산화탄소(CO₂)의 농도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당 기사에서는 창문을 열고 20분 정도 자연환기를 실시하였더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이산화탄소의 농도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더라도 가끔씩 창문을 열고 자연환기를 실시해 주면 기체상 물질의 감소 또한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개발되어 출시되는 공기청정기 중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체상 유해물질도 제거하는 것으로 광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연환기를 실시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공기청정기 가동시 미량이지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일부 자외선(UV) 살균 방식의 경우

에는 오존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오존을 발생시키는 공기청정기는 공공시설이나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오존 발생 농도가 0.05 ppm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방법으로는 오염물질의 발생원 관리, 실내외 환기,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를 제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여 실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환경에서는 원인을 알면서도 제거나 대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은 실내외 환기를 보다 자주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조준호 안수집사
예산위원회 선교사회분과 팀장
한양여대 보건행정과 교수

참고문헌

1. 실내공기질관리법, 법제처, 2022.1.31.
2. NCS학습모듈_실내공기질관리_05실내오염관리, 2018.12.31.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2단계 등록을 앞두고 주저함이 있었지만 적어도 한 번은 훈련자로 서보야 한다는 1단계 훈련자님의 권면을 떠올리며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1그룹 1조로 배정되고 처음 그룹장님과 그룹원을 줌으로 만나 인사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1조 훈련생 두 분께 전화했을 때, 따뜻한 인상의 훈련생 두 분을 줌으로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게 예비해 주신 분들임을 직감했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렸다.

하지만 기쁨과 설렘도 잠시, 훈련 횟수가 거듭될수록 부담감이 밀려왔다. 내가 과연 훈련자로 자격이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었다. 팀전도도 막막했다. 과연 6회의 팀전도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전도 대상자는 잘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함

을 1단계 때 경험했음에도 또다시 연약해진 내 모습과 직면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훈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했다. 훈련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며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 다시금 평안이 임했다. 1그룹 줌모임으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 1조 줌모임에서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기쁨과 위로가 임했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팀전도 대상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섬세한 계획은 놀라웠다. 1단계 때 훈련자이셨던 타 교회 전도사님은 나를 위한 기도 가운데 팀전도 대상자들이 생각났다면 먼저 연락을 주셨다. 또 같은 1그룹에서 전도 열정이 넘쳐나는 훈련자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가만히 앉아서 전도 대상자를 소개받을 때 주님의 따뜻하고 선하신 인도하심에 눈물이 났다.

이번 팀전도를 통해 먼저 깨닫게 하신 점은 첫째, 대상자를 만나기도 전에 그의 영적 상태를 속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신 것, 둘째,



최지아 성도
종로·성북교구



필자들어간 조의 훈련과정(쭈)



훈련학교 수료사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님만을 간절히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확신과 이유의 질문, 결신기도, 그리고 복음을 나눈 후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향한 내 선입견이 옳지 않음을 깨달았고, 결신기도를 앞두고 주저하는 영혼을 보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담대하게 결신기도로 안내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환해진 듯한 대상자들의 모습을 보며 큰 감격을 누릴 수 있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더욱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생 두 분의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고 구두 평가시험에서는 두 분 모두 100점 만점을 받는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경험을 주시는 주님

개인전도로 놀라운 경험을 선사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단계가 끝나갈 무렵 사촌형부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촌언니에게 전화했을 때 이번에는 외숙모님(사촌

언니 모친)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가 얼마 전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온통 불고 배경의 외갓집 식구들이라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나처럼 작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가복음 10:27)’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한 달쯤 지나 사촌 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엄청난 크리스천 요양보호사가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나 잘 해주신다는 것이었다. 언니의 입에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 나는 깜짝 놀랐다. 전화를 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다. 언니에게 요양보호사의 연락처를 받아 통화하게 됐고 감격스러운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 그리고 외숙모님이 하나님께 돌아올 자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다. 그 후 큰맘을 먹고 외숙모님 댁에 방문했다. 주일이라 요양보호사가 잠시 집

에 돌아가신 시간이었는데 그만 눈앞의 참담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졌다. 2층에 법당을 차려놓은 외숙모님 댁이라 스님 한 분과 마주쳤고 불공을 드리러 온 분들도 보였다. 나를 반겨 주시지만, 여전히 완고해 보이는 외숙모님 모습. 절망감이 들었지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선포했다.

외숙모 전도

전폭 2단계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외숙모님 댁에 그냥 인사나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방문했다.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며 크리스천 요양보호사를 내보내고 이제는 파트타임 요양보호사가 오전에만 다녀간다고 했다. 따뜻한 오후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은 정말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외숙모님과 둘이 있으려니 정말 어색했지만, 간증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기도하고 외숙모님께 간증을 시작했다. 집중해 들으시며 반응하는 외숙모님 모습에 깜짝 놀란 나는 이때다 싶어 복음의 운을 떼었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지며 외숙모님께 “외숙모, 하나님이 외숙모님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때 “나도 하나님께 가고 싶는데 그럴 수가 없어”라고 대답한 외숙모님의 목소리에 귀를 의심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 가실 수 있어요” 외치다시피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결신기도 차례가 왔고 외숙모님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

해 주시겠어요?” 하자 그러겠다고 하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 할렐루야!!!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당분간은 가족과 사람들에게는 비밀에 부치기로 하고 2층 법당도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기도하자고 했다. 그 후 다시 외숙모님께 방문했을 때 아직도 망설이시는 외숙모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 시선과 무엇보다 자식들 눈치가 보이는 것 같은 모습에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앞으로의 일들이 막막하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또다시 맡겨드리고 오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실 기적을 사모하며 기대한다.

종묘공원 전도

외숙모님께 복음을 전한 기쁨이 가시지 않은 며칠 후 서울로 가면서 ‘오늘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으면 제게 붙여주세요’라고 간절한 기도가 나왔다. 서울에 도착해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꽤 많은 정류장을 지나치며 기도를 드리는데 한 여자 분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앉자마자 나를 보시더니 계속 이런저런 알 수 없는 말을 건네셨다. 뉴스 얘기를 하는 듯 보였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처럼 보여 처음엔 망설였지만, 혹시 주님이 붙여주신 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용기 내어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드리고 혹시 어디서 내리시는지, 예수님을 믿으시는지, 교회에 다니시는지 등을 물었다. 여러 종교를 두루 거치신(?) 듯 보였는데 복음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지 물었더니 흔쾌히 듣겠다고 답하셨다. 함께 내린 정류장 바로 앞에 마침 탁 트인 종묘공원이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알 수 없는 혼잣말이 많은 분이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결신기도도 따라 하셨다. 기도를 마친 후 그분의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천국의 확신 질문에서는 크게 “아멘!”으로 답변하셨다. 복음을 들으신 후 정말 많이 차분해지셨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 정말 힘든 인생을 사신 분 같았다. 주님께서 위로하고 싶은 분이였음이 느껴졌고 앞으로 이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기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후 카톡으로 그룹

원들과 함께 감격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생각지도 못한 두 번의 개인 전도를 특히 잊지 못할 것 같다.

1단계에 이어 이번에도 참 좋은 그룹장을 만나게 되었다. 늘 뒤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그룹장, 팀전도와 개인 전도를 위해 중보기도로 함께해주신 그룹원들, 그리고 팀전도로 함께 생생한 영적 전쟁에 참여한 두 분의 훈련생께 감사드리며, 수고와 격려로 36기 훈련을 이끌어주신 고마운 스태프들과 목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남**



초대합니다

2022년 상반기 전도훈련학교

토요일: 2022.3.12-6.4(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화요일: 2022.3.15-6.7(매주 화요일, 오전10시-오후12시)
 훈련비: 3만원
 훈련방법: 온라인, 줌(zoom)

신청방법: 영락교회 홈페이지, 주보광고 QR,
 베다니광장 부스
 전도부 사무실(기념관 6층, 주일오전)

신청기한: 2022.2.25(금)
 문 의: 토요일(010-7492-0624)
 화요일(010-3354-3835)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전도부-전도훈련팀

바흐의 <전원곡> (Pastorale, 파스토랄)



[그림1] 이 그림은 한 가운데 물로 양쪽이 나뉘어 있는 아름다운 전원의 모습이다. 자세히 보면 물 왼쪽에 경배하는 사람과 그 뒤 한 무리가 피페라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년 8월 29일 주일, 주보 예배 순서지 시작과 끝에 오르간 전주와 후주 게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무심코 지나쳤을 법 하지만 오르가니스트인 저로서는 이제야 비로소 개혁신교회 예배형식이 완전하게 실현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합니다. 당시 음악부 김정희 목사님, 음악부장 김성현 장로님을 포함한 실행위원들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김운성 목사님의 재가로 인한 열매입니다.

중요한 예식의 시작과 끝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동·서양에 걸쳐 행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갈리에누

스(주후 260~268)는 자신이 입·퇴장할 때 음악을 연주하도록 지정하여 이 황제가 입장할 때는 오르간이, 퇴장할 때는 피리가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서도 신랑 신부가 입퇴장할 때 음악이 연주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의 오르간 전주와 후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고 예배 전체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만든 개혁신교회 예배 순서에서 예배는 오르간 전주로 시작하여 오르간 후주로 마칩니다. 따라서 오르간 전주와 후주는 대부분의 경우 교회력, 절기, 설교의 제목과 예배의 주제 등에 관한 예전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바흐와 전원곡(田園曲)

대강절과 성탄절 즈음에 많이 연주되는 음악중에서 바흐(J. S. Bach 1685~1750)의 전원곡(파스토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 오르가니스트들



박소인 권사
성남·분당교구
갈보리찬양대 반주

에게 바흐는 특별히 중요한 작곡가입니다. 중요한 오르간 곡을 가장 많이 작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한 루터교 신자로, 루터의 찬송가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작곡한 수많은 칸타타, 수난곡에 찬송가를 널리 사용했습니다. 찬송가를 사용하여 작곡한 오르간 곡은 찬송가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어 그야말로 곡조 있는 기도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아닌 그림을 담은 곡이 있습니다. 바로 전원곡 (파스토랄)입니다. 전원곡 또는 전원 교향곡은 수려한 자연경관 또는 시내가 흐르는 아름다운 시골풍경이 떠오르는 음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목자의 노래’입니다. ‘목자님’을 뜻하는 파스토(Pastor)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Pastor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이 음악은 성탄절을 맞아 목동들이 산에서 내려와 피페라리(Pifferari)라는 악기와 백파이프등으로 연주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그림 1)

바흐가 활동한 17~18세기 유럽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반(反)종교개혁 세력과의 극심한 대립이 끝나고 기독교가 국교로써 음악을 비롯한 모든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음악사적으로는 그 이전과 다른 양상의 음악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가 바로 바로크(Baroque) 시대입니다.(그림 2) 독일에서는 이 시기에 세속 음악도 종교 음악으로 들릴 정도로 모든 분야에 기독교 성격이 매우 강하게 표현되었습니다.(그림 3)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이 노래하는 전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산과 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그 특정한 전원입니다.

그날 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본 천사들, 별, 말구유, 마리아와 요셉, 동방 박사들을 보여주



[그림 2] 바로크시대의 연주자들 모습

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크 시대 또 다른 대표 작곡가인 헨델도 그의 유명한 메시아에 이러한 전원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전원곡을 통한 그림 그리기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BWV480)〉는 메시아만큼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바흐가 쓴 대규모의 오라토리오입니다. 총 6부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곡은 1부(총 9곡으로 구성.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적 내용)가 끝나고 2부(총 13곡으로 구성)의 첫 곡으로 등장하는데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누가복음 2:8)”라는 서창이 이어집니다.

헨델의 메시아에서는 “우리를 위해 나셨네” 합

창 후에 전원교향곡(Pifa Pastoral Symphony)이 있습니다. 여기서 Pifa는 목동들이 흔히 사용하던 피페라티를 말합니다. 역시 누가복음 2장 8절에 근거한 “어느날 밤 양치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더니”서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으로 보면, 전원곡은 잠시 쉬어가는 간주가 아니라 작곡가들이 음악을 통해 목자들이 본 아기 예수 탄생의 장면을 우리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으로 연극 무대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전원곡은 삼박자의 멜로디와 붓점 리듬이 주를 이루며, 긴 베이스 음표위에서 연주됩니다. 평화롭고 작은 움직임 속에서 노래가 흐르는 듯이 들립니다. 제가 바흐의 오르간 전원곡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곡 전체에 흐르는 리듬을 ‘아기 요람이 살살 흔들리는 것’처럼 연주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오르간 전원곡의 그림 - 예수님

바흐의 또 다른 전원곡은 오르간을 위한 곡(BWV590)입니다. 다른 오르간 곡들과는 다르게 큰 음색도 아니고 발 페달 사용도 미비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초라한 말구유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전원곡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4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없는 오르간 음악으로 어떻게 듣는 사람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전형적인 리듬의 평화로운 전원곡으로 시작하여, 단순한 피리같은 음악의 2악장, 슬픈 단조의 3악장과 기쁘게 용솨음치는 4악장입니다. 가사가 없는 오르간 음악으로 어떻게 듣는 사람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



[그림 3] 전형적인 바洛克 오르간으로 네덜란드 할렘의 성 바보 (St. Bavo) 교회에 있다

을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곡을 분석해 보면 1, 2악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이어 장차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3악장에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4악장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노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의 희생을 위한 것이라는 바흐의 믿음을 보여 줍니다.

〈목자의 노래 (파스토랄)〉로 참 목자 예수님을 그려낸 것입니다. 전원곡을 들을 때 이 숨은 그림인 참 목자 예수님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남**

눈으로 듣는 빌립보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 진정한 기쁨을 찾아서



남윤재 목사 지음 / 바인일구 / 2021년

『눈으로 듣는 빌립보서』는 남윤재 목사의 두 번째 저서이다. 책 제목에 있듯이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책에 있는 ‘눈으로 보는 동영상’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저자 음성의 동영상을 통해 귀로도 들을 수 있다.

이 책의 부제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진정한 기쁨을 찾아서!’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어두운 로마감옥에 갇혀 있었다. 바울은 고통과 사망에까지 이르는 슬픔을 경험했고 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힘든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맛보는 ‘진정한 기쁨’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증하고 있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빌립보서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기쁨의 편지〉

1부 빌립보서 전체읽기

2부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 빌립보교회

3부 눈으로 듣는 빌립보서

- (1) 성도를 위한 기도가 주는 기쁨 (빌립보서 1:1~11)
- (2) 기쁨을 막는 것은 결국 두려움 (빌립보서 1:12~26, 28)
- (3) 기쁨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빌립보서 1:27~30, 2:1~11)
- (4) 구원을 이루는 기쁨의 힘 (빌립보서 2:12~18)
- (5) 누군가를 위해 기뻐한다는 것 (빌립보서 2:19~30)
- (6) 주 안에서의 기쁨 (빌립보서 3:1~16)
- (7) 기쁨은 보고 배우는 것 (빌립보서 3:17~4:9)
- (8)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4:10~23)



임대현 집사
성남·분당교구
자원봉사부

복음은 사상이나 이론이 아닌 실재(實在)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입니다. 빌립 보서는 사도바울의 사역 후반기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기쁨의 서신입니다. 2천 년 전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주님이 주

시는 참된 기쁨’을 동일하게 경험한 저자는 2년이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과 염려,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라’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다. **만남**

저자소개

남윤재 목사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했고 산지교회 담임 목사이며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광장 _ 작가노트

엄마 마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하길 원하였고 ‘사랑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자식을 품듯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와 은총으로 품어 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너른 품에 따스함과 안락함, 기쁨과 행복에 젖은 은혜의 마음을 ‘엄마 마음’이라는 작은 표상으로 표현했습니다. **만남**



유당주 은퇴권사 _ 관악·금천·동작교구

교회소식

news letter

자녀와 함께 하는 오이코스 축복 기도회 열려



매년 2월 신학기를 앞두고 열렸던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올해는 교회의 2022년의 주제 '행진하여 가라'와 영락 오이코스는 영적 운동에 발맞춰 2월 금요찬양 기도회를 통해 진행되었다. '자녀와 함께 하는 오이코스 축복기도회'라는 제목으로 2월 11일, 18일, 25일 3주 연속 본당과 부속실에서 온라인과 병행하여 열렸다.

기도회는 2월 11일(금) 오후 7시~8시 30분에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대상으로 강사는 김운성 위임목사, 2월 18일(금) 오후 7시~8시 30분에 사랑부, 중등부, 고등부, 자유인 대상으로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가 강사로, 2월 25일(금) 오후 8시~9시50분에는 베드로부, 대학부, 청년부, 호산나가 참여하여 이두희 목사(대한성서교회)가 강사로 해당 금요일 각 부서 교사들과 함께 부모와 자녀를 초청하여 열렸다.

첫 번째 (11일)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사무엘이 자라매(사무엘상 3:19~21)'란 제목으로 "우리가 다음세대를 향하여 이 시대의 나쁜 환경에서 지켜줄

것은 기도 밖에 없다"라며 "성령님께서 맡기신 자녀들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며 사무엘과 같은 자녀로 키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

두 번째(18일) 기도회의 강사는 학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절제와 능력으로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초월하여 길을 걸어가자"라고 전했다.

강사들의 말씀이 끝난 후, 자녀를 위한 기도회 순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껴안아주며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은 영락의 가정과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오이코스를 세우는 현상이 되어 은혜를 복돋우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각자 써온 기도카드로 부목사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앉은 자리로 찾아가 축복 기도로 격려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부서별 공통 기도제목과 5명의 학생들 이름이 적힌 중보기도카드를 나누어 주어 기도회 이후에도 계속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안수집사회 신년수련회

2022년 안수집사회 (회장 최범용 안수집사) 신년수련회가 '행진하여 가는 안수집사회'라는 표어로 1월 22일(토) 50주년기념관 4층에서 열렸다. 김운성 위임목사가 에베소서 1: 22~23 말씀을 통해 '충만을 사모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2022년 영락교회 구성원 모두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 영락교회의 지향"이라며 안수집사들의 공통 기도제목으로 하자고 당부했다.



안수집사회는 안수집사들이 각 제직부서의 실무를 담당하는 차장으로 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성령의 불씨로 섬기는 일에 함께 실천하며 행진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취재 이민하 홍보출판부 차장 사진 박상수 안수집사

교역자 동정

차동혁 목사 사임, 고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선교부 전담목사로 사역해오던 차동혁 목사가 지난 1월 23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고척교회(서울 구로구 중앙로 79)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5년 1월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여 그동안 노원교구와 상담부를 시작으로 호산나찬양대, 신앙아카데미, 서초교구, 예배위원회, 음악부 등을 맡아 사역해왔다. 1월 23일 찬양예배 시간에 이임 설교를 한 차 목사는 7년간 영락에서의 시간은 너무 행복했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 때문에 늘 기뻐하며 살아 갈 것이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직기념패를 전달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새로운 경주에 승리하는 목회자로 주님께서 앞으로의 목양사역을 지켜주시길 기도로 간구했다.

고척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goecheok.or.kr

김경일 은퇴장로 별세

김경일 은퇴장로가 지난 2월 4일(금) 향년 75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46년 생, 평안북도 철산 출신으로 1976년 고등부 교사로 시작하여 20여 년 간 교무, 부감 등으로 교육부에서 헌신, 봉사하시며 열정을 쏟으셨다. 1992년부터 임마누엘찬양대에서 15년간 찬양대원으로 섬기며 1994년 12월 집사 안수를 받은 후 교육부 차장, 교사교육부 부감, 선교부, 사회부, 음악부 실행 위원 등을 맡았다. 2008년 12월 제37기 시무장로로 장립되어 2016년 12월 까지 당회원으로 섬기며 시설관리부 부장 및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2월 8일(화) 오후 12시 30분 영락공원 묘원에서 조두형 목사(동대문·중랑교구) 인도, 이철신 원로목사의 집례로 자연장 예식을 진행했다. 유족으로 부인 윤경희 은퇴권사와 1남 2녀를 두었다.



2022년도 영락어머니학교 마더와이즈 2기(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시간,
그 자리에 어머니들을 초대합니다

일정

2022년 3월 19일
~4월 23일
(6주간)
매주 토요일 3~5시

인원 및 방법

어머니 20명 내외
(선착순 모집)
실시간 온라인(Zoom)

회비

3만원(교재 및 기타)
우리은행
1005-201-610374
(영락교회 상담부)

신청



문의 : 영락교회 상담부 봉사관 3층 02)2280-0172, 팀장 010-9282-1214

2022년 부서지도 전도사

상
담
부

이영미

북
한
선
교
부

구요섭

“_____은 신입”

국
제
예
배

최성은



변성국

선
교
부

박예주

교육부 부서지도전도사

사
랑
부

진영재 목사



이창근

영
아
부

문주희



이사라

유
아
부

권희준



강베나

유
치
부

윤혜은

유년부



하종찬



이빛나

초등부



김요한



김혜민

소년부



윤화평

C e b c



김지용

중등부



황하은



강하림

고등부



심현석



김진재

대학부



장대성



강우주

청년부



최에녹



홍수미

교사회교육원



양동욱

3월 목회력

4일(금)	연합 및 금요권찰공부 상반기 개강
5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6일(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13일(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제직회
13일(주일)~4/17(주일)	상반기 전도캠페인
18일(금)	심방준비회
20일(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27일(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사회봉사주일

※ 3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믿음 소망 사랑의 값

♥ 📖 는 각각 한자리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식을 유추하여 빈자리에 들어갈 답을 맞춰보세요.

$$\begin{array}{ccccccc} \text{사랑} & + & \text{사랑} & + & \text{사랑} & + & \text{사랑} & = & 28 \\ \text{소망} & + & \text{소망} & + & \text{사랑} & + & \text{소망} & = & 25 \\ \text{믿음} & + & \text{소망} & + & \text{사랑} & + & \text{믿음} & = & 23 \\ \text{소망} & + & \text{믿음} & + & (\text{사랑} \times \text{소망}) & = & ? & \text{53} \end{array}$$

2022년 3월호 통권 577호

발행 2022. 3.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효진
나광호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교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나는 누구일까요?



제 본명은 호세아, 눈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지요.
나는 다른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어요.
그 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포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예요.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둘째 부인으로부터 조롱과 서러움을 당했어요.
나는 자식을 달라 기도하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술 취한 걸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죠. 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귀한 아들을 얻었답니다.



영락화랑

엄마 마음



유당주, 테라코타, 45×25×50cm, 2014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15)